

간호대학생 인성교육을 위한 고전읽기 프로그램 개발과 적용가능성 탐색

Exploration of Development and Applicability of a Classics Book Reading Program as Character Education for Nursing Students

김복자, 전은영
대구대학교 간호학과

Bog-Ja Kim(dabjkim@hanmail.net), Eunyoung Jeon(jeoney@daegu.ac.kr)

요약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전인적인 성장과 발달에 기여할 수 있는 인성교육의 일환으로 고전읽기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간호대학 교육의 한 축으로 삼아 실제로 운영할 수 있는 적용가능성을 탐색하고자 시도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서울지역 대학교를 중심으로 고전강좌가 개설되거나 필수과목으로 전환되고 있다. 각 대학은 정규교양 교과목 운영 이외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 간호교육에서 인성교육을 위한 고전읽기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덕목은 신용, 존중, 책임감, 공정, 배려, 시민정신, 지구력, 건강한 자아개념, 지속적이고 자기성장능력을 포괄적으로 다루는 것이 필요하다. 고전 선정은 각 대학의 학생수준에 적합하고 함양해야할 덕목을 중점으로 정확하고도 이해하기 쉽게 번역된 도서를 선정해야 한다. 인성이 단기간의 교육을 통해 형성되기는 어렵더라도 계속적인 관심과 교육을 통하여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거나 내재된 긍정적 인성이 표출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으므로 간호대학교육에서의 인성교육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교육을 시행함에 있어서 현재의 교과과정에 대해 검토가 이뤄져야 하므로 이에 대한 대학의 합의와 고도의 정책적인 결단이 요구된다.

■ 중심어 : | 인성 | 고전 | 인간성 | 교양교육 |

Abstract

This study explored the development and applicability of a classics book reading program in the nursing curriculum as a character education program in order to enhance nursing students' holistic growth and development. An increasing number of universities in Seoul have introduced a classics book reading program as part of the curriculum and some have even designated it as an essential subject. Various such programs have been developed in addition to the regular education curriculum. The following aspects are important to consider in a classics book reading program for nursing students: trust, respect, responsibility, fairness, caring, citizenship, endurance, healthy self-concept, and self-sustained growth performance. Classics book selections need to take into account the level of the students, and the efforts should be made to ensure the accuracy of the translation and the level of students' understanding. It is difficult to form character through short-term education. Despite difficulties, character formation requires continued interest and systemic education that will lead nursing students to show inbuilt positive characteristics. Inclusion of character education in the nursing curriculum should be considered with the agreement of the university, based on political decision-making.

■ keyword : | Character | Classics | Humanity | General Education |

1.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간호교육은 질적인 간호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직 간호사를 양성하는데 일차적인 목표를 두고 있으며, 이러한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학업지도와 인성교육을 큰 축으로 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한국간호교육평가원에서는 국내외 보건 의료 현장에서 요구하는 간호사 역량을 갖춘 학생을 배출할 수 있도록 각 교육기관마다 간호핵심역량을 반영한 교육목표 및 목적을 설정하고 이를 성취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구성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우리나라 간호 실무현장에서 간호대학 졸업생들에게 요구하는 핵심역량은 치료적 간호역량, 전문직적 간호역량, 행정적 간호역량, 인문학적 간호역량, 관계적 간호역량, 인성적 간호역량이다[1]. 하지만, 현재의 간호교육과정에서 치료적, 전문직적 간호역량은 많이 다루고 있으나 인성적 간호역량에 관한 교육은 부족한 상황이다.

좋은 인성은 대상자 간호에 필수적인 요소로 전문직업권 확립의 기초가 되며, 간호사의 행동에 많은 영향을 미쳐 대상자 간호의 질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핵심역량이다[2]. 특히 오늘날 간호현장에서의 복잡적이고 중증도가 높은 환자를 간호하면서 수반되는 윤리적인 문제에 대한 의사결정 능력을 증진시키고, 대인관계에서 발생하는 갈등관계에서 건전한 가치관을 가지고 대처하고 탄력있게 회복할 수 있으며[3], 직장내 약자 괴롭힘과 같은 부정적인 병원조직문화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인성적 간호역량에 대한 교육이 강화되어야 하는 상황이다[4]. 하지만 현재 간호대학생의 인성과 관련하여 각 대학에서 실시하고 있는 윤리교육은 윤리에 대한 인식과 성찰 능력은 향상되지만 윤리적 행동에는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5], 윤리교과 이외에 바람직한 인성을 함양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인성교육은 고대 소크라테스와 플라톤 시대부터 강조되어 왔으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각 사회의 특성과 시대적 요청사항을 반영하여 바람직한 인재상을 구현하기 위한 지침으로 제시되고 있다. 소크라테스는 이상적인 시민사회의 구성원이 되기 위해서는 어릴 때부터

정의, 지혜, 절제, 용기를 교육해야 한다고 하였으며, 소크라테스 이래로 현대에 이르기까지 2,500년 동안 이러한 덕목을 기반으로 각 사회마다 요구하는 인재상을 정립하여 교육에 반영해 왔다[6]. 하지만 현대 사회는 끊임없이 경쟁과 이익을 위한 삶을 강요하고 있어 전문가가 되기 위한 훈련은 강화된 반면 인류사회의 보편적 가치에 대한 인식과 실천에 대한 교육은 약화된 실정이다.

특히 오늘날 입시 위주의 교육 시스템은 학생들에게 자신의 가치관과 인성을 기를 틈도 없이 어려서부터 무한경쟁 교육으로 일관되어 왔기에 사회인이 되어서 직면하는 다양한 스트레스 관리에 취약하고 대인관계에서의 소통부재 등의 다양한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미국의 경우 23개 주에서 1993년부터 인성교육에 대한 법률을 제정하여 학교교육에 반영하고 있으며[7], 우리나라는 2015년에 '인성교육진흥법'을 제정하여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더불어 살아가는데 필요한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교육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인성은 사람의 성품이나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사고와 태도 및 행동특성을 의미하는 것으로[8], 인간성, 사람됨, 품성 등 다양한 방식으로 설명되어진다. 인성교육이란 사람 됨됨이, 인격, 성격, 행동습관, 태도, 가치관 등을 바람직하게 기르기 위한 교육을 총칭하며, 대학생을 위한 인성교육은 대학생들로 하여금 정체감을 확립하고, 건전하고 조화로운 인성을 형성함으로써 양식있는 행동을 할 수 있는 유능한 시민을 기르기 위해 필요하다[9]. 인성교육의 목표는 자기중심에서 탈피하여 협동과 상호존중을 지향하고, 도덕적으로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며, 따뜻한 배려, 정당한 권위와 민주적 가치에 대한 존중심에 바탕을 둔 하나의 공동체 만들기 등에 두어야 한다[10]. 즉, 독립된 인간으로서 성숙한 인격을 갖춘 성인이 되는데 있어 가장 기본적인 소양은 인간과 세계에 대한 이해이다[11]. 간호사에게 필요한 인성은 인간애(공감능력, 소통 기술), 지적호기심(학습능력, 상황 판단력), 건강(긍정적 태도, 스트레스 관리), 마케팅(표현력, 장·단점 이해)을 들 수 있으며[12] 이러한 덕목들이 대학교육 과정을 통해 함양되어야 한다.

이러한 인성을 함양하기 위해서는 자신에 대한 긍정

적인 이해를 토대로 인간과 세계가 지향해야 하는 보편적 가치와 덕목에 대한 자각과 습득이 있어야 한다. 특히 대학생 시기는 많은 인간관계 갈등을 경험하는 시기로서 가치를 명료화하고 꿈과 목표를 설정하고 실현시켜 나가기 위해 구체적인 인생계획을 세워야 하며, 정체성 확립과 더불어 인격적으로 성숙해 나가는 중요한 발달과업 시기로서, 좋은 인성 형성을 위하여 학생 스스로 노력해야 하며 더불어 대학 교육에서 이루어져야 한다[9].

대학생에게 내면의 통찰을 통하여 자아를 성찰하고 인간의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는 인격을 갖추고 실천하는 사람으로 교육하기 위한 목적으로 고전읽기를 권장한다[11]. 고전에는 지금까지의 인류문명이 축적한 인간과 세계에 대한 담구와 이해에 대한 핵심적 성취가 보존되어 있다. 고전은 객관적 가치기준에 의해 집대성된 지식으로 보편적 지혜를 담고 있기 때문에 고전읽기를 통하여 사고력을 신장시킬 수 있다. 또한 고전읽기를 통해 독자는 폭넓은 식견과 소양을 쌓을 수 있고 타인의 삶을 통해 인생의 보편적 가치를 발견하며 자아와 세계가 소통하는 정서를 고양시킬 수 있다. 고전읽기는 저자의 생각을 그대로 수용하는 작업이 아니다[13]. 독자는 보이지 않는 저자와의 대화를 통하여 사고의 동질성을 확인하기도 하지만 서로 다른 견해들을 찾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식의 습득과 지적기술의 발달, 궁극적으로 기본적인 아이디어와 문제에 대한 이해의 폭을 심화시키는 중요한 수단이 되므로 인성교육을 위한 방법으로 권장되고 있다. 세인트존스 대학은 미국 대학의 고전읽기 프로그램에 많은 영향을 끼친 대학으로, 이 대학을 모델로 세인트메리 대학과 토마스아퀴나스 대학이 고전 위주의 교육과정을 운영하였으며[14], 현재까지 하버드대학을 비롯한 여러 대학에서 21세기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고전교양 교육을 강화하여 시행하고 있으며[15], 우리나라에서도 고전읽기를 통하여 인류사회의 보편적 가치관에 대한 학습자의 명중한 인식과 그와 관련된 도덕적 판단을 확장하는데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보고 각 대학에서 고전교육을 통한 인성교육을 실시하고 있다[16][17].

이와 같이 인성교육에 있어서 고전읽기의 중요성과

가치에 대해서는 강조되어져 왔으나 독서를 통한 인성교육 개발과 관련된 연구는 매우 부족하다. 현재 인성함양을 위한 고전교육의 방향 탐색[16]과 독서를 통한 인성교육의 프레임워크 개발에 관한 연구[18]만이 진행되었을 뿐 고전교육을 위한 체계적인 프로그램개발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대학에서 고전교육을 통한 인성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기에 [18] 바람직한 인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고전읽기 프로그램을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의 전인적인 성장과 발달에 기여할 수 있는 인성교육의 일환으로 고전읽기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간호대학 교육의 한 축으로 삼아 실제로 운영할 수 있는 적용가능성을 탐색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인성교육을 위한 국내대학의 고전읽기 프로그램 운영 현황을 파악한다.
- 둘째, 간호대학생을 위한 고전읽기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가능성을 탐색한다.

II.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이하준[16]이 제시한 인성함양을 위한 고전교육의 방향에 대한 연구를 토대로 진행하였다. 본 연구는 졸업간호사가 갖추어야 할 인성함양을 목적으로 간호대학생의 인성교육을 위한 고전읽기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방법론적 연구이다.

2. 연구기간

본 연구는 2016년 5월 1일부터 2016년 7월 31일까지 총 3개월에 걸쳐 진행되었다.

3. 연구절차

연구진행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성교육을 위한 현재 우리나라 대학에서 실시하고 있는 고전읽기 프

그럼 운영현황을 파악하였다. 둘째, 졸업 후 임상간호사에게 요구되는 인성을 조사하였다. 셋째, 간호대학생의 인성교육을 위한 고전읽기 프로그램의 주요원칙, 고전선정, 교수학습방법에 대한 고전읽기 교육과정을 개발하였다.

III. 연구결과

1. 인성교육을 위한 대학의 고전읽기 프로그램 운영 현황

오늘날 많은 대학에서 고전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그 이유는 인문학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고 있고, 인성교육의 활성화와 함께 삶의 가치와 의미탐구로서 고전의 위상이 재정립되었으며, 인문학적 상상력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업의 채용문화의 변화로 인하여 고전의 중요성과 고전탐구에 대한 인식으로 자연스럽게 전환되고 있기 때문이다[11]. 하지만 대학생은 경제적 효율성을 최고로 여기는 시대의 흐름 속에서 자신의 삶의 목표와 의미에 대한 고민을 무의미하고 불필요한 것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 인간다운 삶에 대하여 의식적이고 체계적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을 때 인간은 목전의 필요성에 의해 삶이 지배되거나 무의식적으로 내면화된 고정관념이나 편견, 독단, 탐욕 등에 빠지게 된다.

인문학을 근간으로 한 교양교육은 인간이 편견과 독단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데 필요한 지적 능력과 정신을 일깨워 줄 수 있다[14]. 교육의 실제적 유용성과 직업주의가 대학에 만연한 시기에 항존주의자들은 교육의 중심과제를 인간, 정신, 본질로 되돌리고자 하였다. 그들은 교육이 '인간을 인간으로 만드는 도덕적 과업'이라는 전제하에 교육현장에서 최우선적으로 가르쳐야 할 내용은 인간 그 자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인간의 정신을 편견과 독단으로부터 자유롭게 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으로 자유로운 교과와 주제들을 제시하고 이와 관련하여 자유롭게 토론하도록 하였다. 이때 고전을 읽고 이에 대해 질의응답하거나 대화와 토론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19]. 이러한 교육의 일환으로 하버드대학교

는 고전을 널리 보급하고 읽도록 하기 위해 '하버드 고전선집(The Harvard Classics)'을 출간하였으며 현재까지 꾸준히 발간하고 있다.

인성교육과 고전교육은 삶의 의미와 가치의 발견, 자아와 자신이 관계하는 사회와 세계에 대한 통합적 이해를 목표로 하는 점에서 토대를 같이한다. 인간의 삶과 역사, 문화, 가치를 다룬 고전은 인성교육의 보고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11]. 인성교육의 일환으로서 고전읽기 교육의 가능성은 시대가 요구하는 도덕적 가치와 덕목을 찾아 그 중요성의 정도에 입각해 고전읽기를 교육하는 데에 달려있다. 고전교육의 중요한 목표가 인간성의 고양을 목표로 하며[13], 인간성의 핵심요소에도 도덕적 감수성이 포함된다라는 점에서 고전읽기는 인성교육의 목표와 같다. 고전읽기와 관련하여 Hutchins [20]는 시공을 초월하여 인류에게 항구적이고 보편적인 가치와 관련된 '영원한 공부'에 속하는 것을 가르쳐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이들 공부가 공통된 인간성의 요인을 도출하고, 인간과 인간을 관계 짓고, 인간과 인간이 사고한 최선의 것과 관련지어 주기 때문에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다.

Hutchins[20]는 인간을 도덕적, 합리적, 그리고 영적 존재로 보고 물질주의에 편향된 삶은 인생의 참된 목표를 실현하는데 저해되므로 자유와 선을 지향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해 '위대한 저서읽기 운동'(The Great Books Program)'을 시카고대학에서 실시하였다. 미국의 경우 대학 4년 동안 오직 고전목록으로 교육과정이 이루어진 세인트존스 대학 프로그램은 1937년 창설 이후 미국 대학의 고전읽기 프로그램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이 대학을 모델로 1950년 세인트메리 대학과 토마스아퀴나스 대학이 고전 위주의 교육과정을 운영하였으며[14], 1960년대 이후 포스트모더니즘을 거치면서 하버드 대학을 비롯한 세계의 유명대학은 21세기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종합적 사고력을 가진 '신 르네상스형 인재'로 명명하고 인문학적 소양을 갖추기 위해 고전교양 교육을 강화하여 시행하고 있다 [15].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서울지역 대학교를 중심으로 고전강좌가 개설되거나 필수과목으로 전환되고 있다

[표 1]. 고전읽기는 학문적 교양을 축적하는 것 이외에 글쓰기의 기초가 되며, 다양한 분야에 대한 사실인식과 토론을 통한 평가·비판의 과정을 통해 의사소통 능력을 함양하는 효과가 있다. 이러한 장점이 있지만 고전강좌를 정규 교양과목으로만 운영하기에는 학생들이 취득해야 할 학점에 있어서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 각 대학은 정규교양 교과목 운영 이외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

표 1. 대학별 고전강좌 운영 현황

대학	내용(과목개설현황)
가톨릭대	고전독서
건국대	명저읽기 10강좌 개설 도서관, 명저 읽기 코너
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 산실(2011년) 신입생(문명 7개 주제 중 2과목 수강)
고려대	고전읽기와 토론
부산대	3개 영역의 분류 문학·철학, 사회과학·역사, 과학·의학
서울대	명저읽기 총 9과목 주제로 읽는 고전(대학과 사회, 자유, 성과 사랑)
연세대	독서와 토론 (2학점) 명저읽기 (1학점) 위대한 유산 (팀티칭) 그레이트 북스 엔드 디베이트 (3학점)
원광대	글로벌 인문학 강좌
전남대	고전 3권
중앙대	고전읽기 인문, 사회, 자연과학, 예술 등 4개 분야 각 1권
포스텍	인문학의 세계와 비판적 사고

경희대학교의 경우 교양교육의 개혁을 위해 후마니타스 칼리지를 설립하고 인간, 사회, 자연, 역사에 대한 다각적인 이해방식을 폭넓게 접하고, 옳고 그름을 판단할 능력을 길러주며, 성찰능력을 기르고, 배려와 공감의 공동체적 가치들을 체득하여 세계시민적 역량을 함양하는 교양교육을 위해 교육모델을 새로이 구상하였는데 이 교육모델에서 고전읽기 교육이 그 토대를 이루고 있다. 이를 위하여 신입생을 주된 수강대상으로 고전읽기 과목을 2012년 봄 학기부터 [표 2]와 같이 개설하였다.

표 2. 경희대학교 고전강좌 개설 현황

서울캠퍼스	국제캠퍼스
플라톤	이광수
제인 오스틴	정약용
호메로스	과학혁명의 구조
고문진보	그리스 비극
명심보감	세익스피어
성서	도스토예프스키
사기	루쉰
대학 논어 맹자 중용	박경리 토지
노자 장자	니체
황순원	자본론

출처: 이영준, 고전의 바다에 뒹뒹 떠들기-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 칼리지 고전읽기 프로그램, 한국교양교육학회 춘계전국학술대회 자료집, pp.551-570, 2014(6).

이 과목들의 강의진행 원칙은 다음과 같다; 학생들은 수업에 오기 전에 해당 텍스트를 읽고 수업에 임해야 하며 수업시간에는 자신들이 읽은 해당 텍스트에 대해 발표하고 토론한다. 교수는 세미나를 잘 이끌도록 수업에 해당하는 주제를 선정하고 그 주제에 해당하는 핵심 질문으로 수업을 지도하며, 해당 텍스트에 대한 역사적 문화적 맥락을 파악할 수 있는 배경지식을 제공하여 이해를 도우며, 2차 문헌을 강의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가능한 피하도록 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하고 있다[11].

2. 졸업간호사에게 요구되는 인성

졸업 후 2~3년 되는 간호사에게 임상현장에서 요구하는 핵심역량들은 정규 간호교육 내에서 교육되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졸업간호사에게 요구되는 임상간호역량 가운데 이선경 등[21]은 인성적 간호역량과 관계적 간호역량(의사소통을 통한 대인관계능력, 팀워크)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며 인성적 간호역량으로 끈기, 지구력, 건강한 자아개념, 지속적이고 자발적인 자기성장능력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인성은 자기 자신에 대한 부분 그리고 다른 사람 및 지역사회와의 관계에 대한 부분으로 분류할 수 있다 [22]. 박정혜[2]는 임상에서 간호사에게 요구하는 인성적 특성과 그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하는 연구에서 임상간호인성에 대한 개념적 기틀을 다음과 같은 하위영역으로 분류하여 임상간호인성의 특징을

제시한 바 있다: 책임감(신중함, 자기관리), 부지런함(열정, 근면), 평정심(침착, 인내), 신뢰감(정직, 신뢰, 진실함), 간호 상호작용(공감, 경청, 친절, 팀워크), 존중(정중함, 예절), 공평함(상호작용 공정성, 법적 기준 적용).

한편, 간호사는 업무수행 과정 중에 스트레스와 우울 등 부정적인 심리적 문제들을 흔히 경험하며, 간호업무와 관련하여 정신적 긴장과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받는 특성이 있으므로 임상간호사는 이러한 상황으로부터 탄력적으로 회복하는 극복력을 지녀야 하며 이에 대한 중요성이 상당히 강조되고 있다[23].

이와 같이 졸업간호사에게 임상에서 기대하는 인성적인 면이 매우 다양하지만 이들을 종합하면 [표 3]과 같다.

표 3. 졸업간호사에게 요구되는 인성

영역	요인	하위요인
자기 자신에 대한 부분	책임	신중함 자기관리
	지구력	침착 인내 끈기
	극복력	건강한 자아상 자기효능감 강인함 영성
타인과의 관계에 대한 부분	성실	열정 근면
	신뢰	정직 진실함
	대인관계	공감 경청 팀워크
	존중	정중함 친절 예절
	공평함	공정성 법적기준 적용

3. 간호대학생의 인성교육을 위한 고전읽기 프로그램 개발

3.1 주요 원칙

인성함양을 위한 고전읽기 교육과정 개발과 관련하여 이영준[11]은 다음과 같은 주요한 원칙을 제시하였다. 첫째, 중요한 인성덕목에 입각한 고전 선정이 필요하다. 둘째, 인성함양을 위한 고전읽기 교육은 도덕적

판단력의 강화와 함께 도덕적 실천을 촉진시키는 방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실천중심형과 주지주의 인성교육의 적절한 결합에 근거하여 고전을 선정하고 고전과의 내적대화를 통해 도덕성과 실천력을 비판적으로 성찰하는 능력을 신장시켜야 한다. 셋째, 시대가 요구하는 도덕적 가치를 적극 반영하는 고전읽기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영준[11]은 우리사회가 요구하는 도덕적 가치로 신의, 타인존중, 책임감, 공정(정의), 배려, 시민정신, 정직, 용기, 성실, 통합성, 자기설계 및 성찰능력, 개방성, 진취성, 문화적 교양, 소통과 공존을 제시한 바 있다. 넷째, 특화된 인성함양을 위한 교수-학습 모형과 교수방법론을 개발하여 교육에 적용해야 한다. 즉, 고전 텍스트의 선정만이 아니라 텍스트 분석의 관점과 평가 및 학습에 있어 인성함양을 촉진하는 교수-학습방법이 개발되고 체계적으로 적용되었을 때 인성함양을 위한 교육이 가능하다.

1992년 'The Josephson Institute of Ethics' 주최의 세미나에서 '인성교육에 관한 에스펜 선언'이 채택되면서 신용(정직, 통합성, 신뢰, 충성심), 존중(정중/예의바름/의젓함, 존엄성/자율성, 관용 및 수용), 책임감(책무감, 수월성 추구, 자기규제), 공정(과정중시, 공평), 배려, 시민정신의 6가지 인성덕목이 제시되었다. 2011년 우리나라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인성덕목으로 존중, 책임, 정의, 배려를 제시하여 에스펜 선언과 유사한 덕목이 제시되었다[19]. 이선경 등[21]이 교육팀장 및 교육수간호사를 대상으로 간호대학 졸업생들에게 요구되는 간호역량에 대하여 포커스그룹으로 연구한 결과, 인성적인 면은 '끈기와 지구력', '건강한 자아개념', '지속적이고 자발적인 자기성장능력', '예의와 예절'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이지만 끈기, 강인성, 지구력을 갖는 것이 필요하며, 건강한 자아개념을 가질 때 무기력과 낮은 자존감에서 벗어나고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으며 스트레스가 많은 간호현장에서 발전할 수 있다.

또한 간호사는 환자나 동료, 상사 등에게 기본적인 예의를 갖추고 대할 수 있어야 하며 이러한 인성은 인문학적 역량을 통하여 증진될 수 있다. 그러므로 간호교육에서 인성교육을 위한 고전읽기 프로그램을 개발

할 때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덕목은 신용, 존중, 책임감, 공정, 배려, 시민정신과[24], 지구력, 건강한 자아개념, 지속적이고 자발적인 자기성장능력[19]을 포괄적으로 다루는 것이 필요하다.

3.2 고전 선정

특정한 인성함양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성요소에 가장 잘 부합되는 고전텍스트를 선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고전을 선정함에 있어서 몇 가지 쟁점을 고려해야 한다. 먼저 동서양 고전 비율과 특정 텍스트의 선정이다. “명심보감”과 같이 특정한 텍스트 하나를 선택하는 것은 많은 문제가 유발될 수 있다. 고전을 선정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고전 교육위원회’를 구성하여 논의를 통하여 특정 인성요소에 대한 핵심텍스트 중심으로 교육하는 것을 방침으로 정하고, 핵심텍스트 1권과 보조텍스트 3~4권으로 하되 그중 동서양 고전비율을 1:3으로 조절하는 것이 타당하다[11]. 둘째, 전통적인 고전과 현대고전의 비율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는 현재 직면한 간호현장의 문제유형과 그것을 공동체적 차원에서 풀어나가는데 필요한 인성이 무엇인가에 근거하여 과거와 현대의 고전 비율을 정해야 할 것이다. 인성함양을 위한 고전의 난이도 배분은 목적의 특수성으로 인해 일반 고전교육보다 더 섬세한 교육적 숙고가 요구된다.

고전을 선정함에 있어 일부 대학에서는 여러 가지 덕목들을 교육하기 위해 고전의 일부를 발췌하여 교과과정으로 구성하고 있으나, 고전을 통권으로 읽는 것이 보다 깊이 있는 고찰을 위해 더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있다[12]. 고전읽기를 통하여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여 자신감을 갖게 하고 인문적 가치를 내재화하여 인간으로서 자신의 존엄성을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공자 등의 저술을 선정할 수 있으며, 과학문명의 근간을 이해하고 사회적 조건속에서 문제의식을 탐구하기 위하여 근대의 고전들을 선정할 수 있다. 다음은 간호대학생의 인성교육을 위한 고전읽기 프로그램 추천 도서이다[표 4].

고전을 선정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다 [11]; 첫째, 고전에 졸업간호사가 갖춰야 할 인성관련

덕목이 내포되어 있는가? 둘째, 고전읽기 교과목의 운영에서 나타난 문제점은 해당 텍스트의 번역이 난해하여 학생들이 이해하기 어렵지는 않은가? 셋째, 철학서의 경우 난이도가 높아서 토론을 진행하는데 문제점은 없는가? 넷째, 종교서적의 경우 어떤 관점에서 가르쳐야 하는가? 다섯째, 동양고전의 경우 한자능력이 취약한 학생들에게 해당 텍스트에 대한 이해와 문화적 배경 지식 설명에 할애하는 시간이 있는가? 마지막으로 고전을 독파한 경험이 전혀 없는 학생들에게 한 학기동안 천 페이지가 넘는 분량의 고전을 읽고 과제를 부과하여 토론하게 할 경우 포기하는 학생이 발생하지는 않는가? 이러한 다각적인 면들을 염두에 두고 각 대학의 학생수준에 적합하고 함양해야 할 덕목을 중점으로 정확하고도 이해하기 쉽게 번역된 도서를 선정해야 한다.

표 4. 간호대학생의 인성교육을 위한 고전읽기 프로그램 추천 도서

도서명	저자
오디세이	호메로스
영웅전	플루타르코스
국가	플라톤
니코마코스 윤리학	아리스토텔레스
성서(신약 중 마태복음)	
에밀	장자크 루소
전쟁과 평화	톨스토이
논어	공자
토지	박경리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	도스토예프스키
돈키호테	세르반테스
팡세	파스칼
맥베스	셰익스피어
햄릿	셰익스피어
허클베리핀의 모험	마크 트웨인
꿈의 해석	프로이트
파우스트	괴테
수상록	몽테뉴
사기	사마천

3.3 교수학습 방법

간호대학생의 바람직한 인성함양을 위한 고전읽기 프로그램 교육의 효율성은 교수학습방법과 교수자의

인성에 달려있다. 교수학습방법은 추구하는 인성과 고전텍스트 선택, 프로그램 진행방법, 시간배분 등이 관련된다. Cannaerts 등[5]이 윤리에 대한 인식과 실천에 관하여 메타분석한 결과 교수학습 방법에 있어서 강의만으로 윤리교육을 진행했을 때 학생들은 윤리인식에 대해 따분해 하거나 비현실적으로 생각하였고 윤리적 행동의 실천에 대한 동기부여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리교육에 있어서 교수-학습자 모두 사례분석을 통하여 윤리적 갈등상황에서 의미있는 행동을 발견하고 보편적 가치에 기준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데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고전읽기 프로그램도 사례를 찾아 토론하고 발표 및 비평하는 과정을 통하여 의미있는 덕목의 발견과 동기부여가 촉진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사례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는 과정을 통하여 인성과 관련된 덕목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자신이 경험한 상황에 적용하기에 유용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학생들은 사례에 관하여 토의하는 과정 동안 의사결정 능력이 증진되었다고 하여 고전교육에 있어 본문에서의 사례를 선택하여 주제를 주고 깊이 있게 토의하는 과정이 중요하므로[25] 교수자는 특정 텍스트의 각 장마다 인성관련 사례를 발췌하고 토론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도덕적 실천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은 자신에 대한 성찰과정이 필요하며 이는 독서와 토론을 통해 가능하다. 선행연구[26][27]에서도 윤리적 감수성을 높이고 실천력 향상을 위하여 그룹토의와 함께 성찰을 병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하였다. 또한 학생들은 성찰일지를 쓰는 과정을 통하여 새로운 시각을 가지게 되므로, 고전을 읽고 토의한 후에 독후감을 작성하면서 성찰하는 시간을 가진다면 인성을 키워드로 한 통합적인 고전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11]. 고전읽기 교육을 위한 프레임워크 개발에 있어 이병기[17]는 10차시분의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제안하였으며, 이하준[16]은 2시간을 기준으로 15주 분량의 수업을 제안한 바 있다. [표 5]는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고전읽기 프로그램을 1학기 운영할 경우 시행 가능한 교수학습 방법과 진행에 대한 예시이다.

표 5. 고전읽기 프로그램 교수학습방법 예시

시간(분)	수업운영	비고
~20	선정된 고전텍스트에 대한 설명 관련 인성에 대한 강조	교수
20~50	조별텍스트 분석 - 사례 찾기 - 관련 사례 만들기	토론
50~60	휴식	
60~80	조별 개인경험 토의	토론
80~100	조별 발표	비평
100~110	총정리	교수 독후감제출
110~120	휴식	

IV. 논의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간호학에 있어 간호사의 인성은 간호의 본질인 돌봄을 제공하는데 있어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며 중요한 가치이다. 간호교육에서 인성교육을 시행함에 있어 핵심가치가 되는 덕목은 예(禮),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으로 자신의 내면을 바로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과 더불어 살아가는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이다. 간호사가 갖추어야 할 역량으로 바른 인성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많은 간호역량 연구들에서 간호사의 인성적 역량을 도출하지 않은 것은 그동안 인성교육이 대학 이전의 학교교육과 가정에서만 강조된 것에 기인된다. 21세기의 대학교육에서 지적이고 기능적인 교육을 중요시 여기고 인성교육에 대한 시간을 많이 할애하지 않은 결과, 현재 임상현장에서는 근무지에서 약자를 괴롭히거나 자존감 저하 등의 많은 문제가 도출되고 있어 최근 사회적 환경변화에 따라 간호대학교육에서도 인성교육에 중점을 두고 다루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

인성이 단기간의 교육을 통해 형성되기는 어렵더라도 지속적인 관심과 교육을 통하여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거나 내재된 긍정적 인성이 표출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으므로[19], 간호대학교육에서의 인성교육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인성교육이 추구하는 궁극적 가치는 개인과 사회의 행복을 도모함에 있으며 정신력이나 도덕적 성숙은 인성교육의 핵심으로서 학문적 개

혁이나 성취 역시 인성교육의 영향을 받는다. 인성교육은 인격교육을 중심으로 민주시민교육, 소질·적성개발 및 개발교육, 합리적 의사결정능력 및 창의적 문제해결능력 교육, 리더십을 포함한 진취적 태도 함양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포함시킬 수 있다.

한편, 사회변화가 느린 공동체에서는 공동선과 덕을 체득하는 것만으로도 훌륭한 사람을 만들 수 있다. 그러나 이질적이고 다양한 문화와 접하거나 특정한 문화를 내세울 수 없는 현대사회에서는 예측하기 쉽지 않고 복잡한 도덕적 상황들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특정 문화의 덕만으로는 현실문제에 대처하기 어려우며, 다양한 가치를 확인하고 공유할 수 있는 교육방법이 요구된다[28]. 바람직한 인성을 함양하기 위한 교육방법론에는 다양한 견해가 있으나, 가치에 근거하지 않는 교육은 실패하는 반면에, 가치에 근거한 교육은 태도와 인성변화에 큰 영향을 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29].

고전교육은 가치에 근거한 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 의사소통과 글쓰기 교육을 위해 많이 다루어졌으나 고전을 읽고 토의하는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인류사회에 면면히 이어오고 있는 보편적 가치를 깊이 있게 이해하고 삶에 적용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뿐만 아니라, 토론하는 과정을 통해 진지한 청취, 정확한 발언, 반성적 사고와 같은 대인관계 기술을 터득하게 되어 인지적 측면뿐만 아니라 행동적 측면에서의 변화도 촉진하게 되어 인성교육에 많이 추천되고 있다[18].

또한 고전교육은 간호대학생에게 인문학적 소양을 증진시킬 뿐 아니라 이를 통해 인성도 강화될 수 있기에[19] 간호사에게 필요한 인문학적 역량과 인성역량을 모두 제고하기에 적합한 방법인 것으로 판단된다. 간호대학생을 위한 고전강좌의 경우 정규교과목으로 1강좌를 개설하고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고전읽기 프로그램에 참여를 권장하거나, 교육학습센터에서의 독서클럽 운영 등의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여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바람직한 인성함양을 위한 고전읽기 교육은 간호사에게 요구되는 덕목을 교육할 수 있는 고전텍스트 선정이 중요하며, 이를 토대로 고전텍스트 관점에서 사례분

석, 사례 만들기 등의 시도를 통해 인성키워드에 대한 학습자의 명확한 인식과 그와 관련된 도덕적 판단과 의식을 확장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18]. 이와 더불어 교육효과를 최대한 창출하기 위해서는 교수학습방법을 재고해야 한다.

고전읽기 교수학습방법에 있어 고려할 점은 일방적인 강의식의 주입식 교육방법은 효과가 없으며[4], 교수-학습자가 사례분석을 통하여 토론하는 과정에서 보편적 가치에 기준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5]. 또한 교육기간은 도덕적 감수성 및 도덕적 추론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약 3~12주 동안 매주 만나 토론했을 때 효과적이며, 대학 신입생이 가장 적합한 시기인 것으로 보고되었다[30]. 그러므로 인성함양을 위한 고전읽기 교육을 도입할 경우, 고전교육위원회를 조직하여 각 대학에서 추구하는 인성 덕목에 대한 목록과 학습경험을 명확히 제시하고, 이러한 덕목이 내포된 고전을 선정하여 대학 1학년 때 한 학기 동안 그룹별 인성관련 덕목에 대한 사례분석 및 사례 만들기 등의 토론 및 발표 형식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결론적으로 고전은 시공을 초월한 인류문화의 보편적 가치와 인간 경험의 다양한 폭과 깊이를 반영할 뿐만 아니라 지적으로 성장하게 하여 간호대학생이 갖춰야 할 바람직한 인성을 형성함에 있어 훌륭한 영향을 끼친다. 그러므로 이러한 교육을 시행함에 있어서 현재의 교과과정에 대해 검토되어야 하며, 고전에 대한 전문성 있는 전임교수에 의해 수업이 진행되어야 하므로 이에 대한 대학의 합의와 고도의 정책적인 결단이 요구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 제시한 고전읽기 프로그램을 시행한 후 인성함양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는 추후 연구가 필요함을 제언하는 바이다.

참 고 문 헌

- [1] 이우정, 박태건, “대학의 고전읽기 교육에 관한 모색,” 국제언어문학, 제28권, pp.255-271, 2013.
- [2] 박정혜, “임상간호인성 측정도구 개발,” 한국간호

- 교육학회지, 제22권, 제2호, pp.137-151, 2016.
- [3] M. Park, D. Kjervik, J. Crandell, and M. H. Oermann, "The relationship of ethics education to moral sensitivity and moral reasoning skills of nursing students," *Nursing Ethics*, Vol.19, No.4, pp.568-580, 2012.
- [4] 박광옥, 김세영, 김종경, "간호사의 근무지 약자 괴롭힘 경험과 소진, 조직몰입, 이직의도 및 간호 생산성," *임상간호연구*, 제19권, 제2호, pp.169-180, 2013.
- [5] N. Cannaearts, C. Gastmans, and B. D. Casterle, "Contribution of ethics education to the ethical competence of nursing students: Educators' and students' perceptions," *Nursing Ethics*, Vol.21, No.8, pp.861-878, 2014.
- [6] P. L. Glanzer, "Legislating the good," *Education Policy*, Vol.20, No.3, pp.525-550, 2006.
- [7] P. L. Glanzer and A. J. Milson, "Legislating the good: A survey and evaluation laws in the United States," *Education Policy*, Vol.20, No.3, pp.525-550, 2006.
- [8] The National Institute of the Korean Language, South Korea, *Korean standard unabridged dictionary*, Retrieved August 7, 2016, from The National Institute of the Korean Language Web site: <http://stdweb2.korean.go.kr/main.jsp>, 2015.
- [9] 박은민, "대학생을 위한 인성교육 프로그램 효과,"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2권, 제7호, pp.497-509, 2012.
- [10] T. Lickona, "Educating the moral child," *Principal*, Vol.68, No.2, pp.6-10, 1988.
- [11] 이영준, "고전의 바다에 풍덩 뛰어들기-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 칼리지 고전읽기 프로그램," *한국교양교육학회 춘계전국학술대회 자료집*, pp.551-570, 2014(6).
- [12] 송경자, "간호사가 갖추어야 할 인성," *한국간호교육학회 동계학술대회 자료집*, pp.49-96, 2015.
- [13] 손승남, "위대한 저서(The Great Books) 프로그램을 토대로 본 우리나라 대학 인문고전교육의 방향 탐색," *교양교육연구*, 제7권, 제4호, pp.449-472, 2013.
- [14] 김민정, "이공계대학 교양교육 강화를 위한 인문 통합교과 모형에 관한연구-포스텍의 인문학의 세계와 비판적 사고 강화를 중심으로," *국제어문*, 제55권, pp.599-637, 2012.
- [15] 신득렬, "물질주의에 맞선 고전읽기 운동," *중등우리교육*, pp.118-121, 1994.
- [16] 이하준, "인성함양을 위한 고전교육의 방향 탐색," *교양교육연구*, 제8권, 제5호, pp.423-448, 2014.
- [17] 안현호, "고전교육을 통한 인성교육: 이론적 기초와 사례연구," *한국교양교육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pp.143-158, 2016.
- [18] 이병기, "독서를 통한 인성교육의 프레임워크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45권, 제4호, pp.95-117, 2014.
- [19] 손승남, "대학인성교육의 교수학적 고찰," *한국교양교육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pp.322-330, 2013.
- [20] R. M. Hutchins, *Education for Freedom*, Baton Rouge: Louisiana State, 1943.
- [21] 이선경, 박선남, 정석희, "간호실무현장에서 요구하는 간호대학 졸업생들의 간호핵심역량," *간호행정학회지*, 제18권, 제4호, pp.460-473, 2012.
- [22] M. Josephson, *Making ethical decisions*, Los Angeles, CA: Josephson Institute of Ethics, 2002.
- [23] Q. M. Pearson and J. Nicholson, "Comprehensive Character Education in the Elementary School: Strategies for Administrators, Teachers, and Counselors," *Journal of Humanistic Counseling, Education & Development*, Vol.38, No.4, pp.243-252, 2000.
- [24] 박미미, 박지원, "간호사 극복력 측정도구 개발," *기본간호학회지*, 제23권, 제1호, pp.32-41, 2016.
- [25] C. Edward and P. P. Preece, "Shared teaching in health care ethics: a report on the beginning of an idea," *Nursing Ethics*, Vol.6, No.4,

pp.299-307, 1999.

- [26] T. Durgahee, "Reflective practice: nursing ethics through story telling," Nursing Ethics, Vol.4, No.2, pp.135-146, 1997.
- [27] G. Kyle, "Using anonymized reflection to teach ethics: a pilot study," Nursing Ethics, Vol.15, No.1, pp.6-16, 2008.
- [28] 김우진, "인성교육의 조건과 시민교육," 문화와 융합, 제37권, 제1호, pp.289-316, 2016.
- [29] 안범희, "미국 학교에서의 인성교육 내용 및 특성 연구," 인문과학연구, 제13권, pp.133-169, 2005.
- [30] H. Clarkeburn, "The aims and practice of ethics education in an undergraduate curriculum: reasons for choosing a skills approaches," Journal of Further and Higher Education, Vol.26, No.4, p.9, 2002.

저 자 소 개

김복자(Bog-Ja Kim)

정회원



- 2003년 8월 : 중앙대학교 간호학과(박사)
- 1988년11월 ~ 2003년 8월 : 서울아산병원 간호부
- 2013년 3월 ~ 현재 : 대구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 간호성과, 인성교육, 간호교육

전은영(Eunyoung Jeon)

정회원



- 1993년 2월 : 경희대학교 간호학과(석사)
- 1996년 2월 : 경희대학교 간호학과(박사)
- 2011년 3월 ~ 현재 : 대구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관심분야> : 재활간호, 만성질환관리, 인성교육